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

(대상 29:9, 11-12)

사울은 세상을 사랑하였으며, 세상이 좋아 세상에서 부귀 영광을 누리는, 세상 사람이 가는 그 길을 좇아갔습니다. 그는 불순종하여 책망을 받을 때에도 사무엘의 겹옷자락을 붙잡고 그 옷이 찢어지도록 매달렸으며(삼상 15:27), 왕의 지위와 영광을 자자손손 누리는 일에만 집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불안하고 걱정하며 누구든지 잘하고 잘되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적으로 만들고, 육의 생각 즉 사탄이 주는 그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삼상 16:14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 육의 사람, 영의 사람

1. 사울은 오직 왕의 자리만 지키려 하였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소원하였습니다.

삼상 19:1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시 27: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그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와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2. 사울은 영적인 꿈이 하나도 없었고 오직 자신의 이익과 영광과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으나, 다윗은 왕이 되어 꿈과 소원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상 20:30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삼상 20:32-33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삼하 7:1-2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불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3. 육의 사람인 사울은 세상의 귀한 모든 힘, 능력, 물질, 권력을 다 받았으나 좋은 일, 선한 일을 한 가지도 못하고 천하에 악한 일만 하다가 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과 축복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여 나라의 발전과 번영과 흥왕을 가져오고, 영적 부흥의 절정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요 15: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축복과 출세와 권력과 물질의 은총이 왜 귀합니까? 영의 사람에게는 보화가 되고, 육의 사람에게는 강도의 칼이 되고 독약이 되기 때문입니다.(고전 10:31)

마 5: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4. 육의 사람은 모든 축복이 사람의 손에 있고, 부귀 영광이 인간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항상 지식과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합니다. 세상 힘을 하나님처럼 바라보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힘이 없으면 당장 배신하고 배반하며, 잘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온갖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합니다. 전자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모이나 후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시 56:6, 시 59:3, 시 94:21)

대상 29:12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시 35:15 그러나 내가 넘어지매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아니하도다

5. 육의 사람은 자기가 잘되고 복 받고 성공해야 하므로 사람을 기르지 못합니다. 사울은 그 위대한 다윗에게 훈장 하나 주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에 매여 통치 40년 동안 사람 하나 기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역대상을 보면 전체가 다윗 시대의 인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은 문지기 하나까지 다 유명하게 되었고, 후계자 솔로몬도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마 1: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은 목자요(삼하 7:8), 예수 그리스도는 참 목자이십니다.

요 10:10-11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삼상 17:34-35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6.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사람에게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물질을 구하지 않았으나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요, 정치를 몰랐으나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정치가요, 음악을 배우지 않았으나 노래와 모든 악기를 잘 연주하였으며, 인간관계에서도 수많은 사람과 소통하며 화목한 일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미국도 영적인 목적을 가진 청교도로 인하여 세계적인 복을 받았습니다.(대하 1:11-12)

마 6: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